

95.3.8.목

인문.총기

95제2회

전교 여학생 대표자 회의

일 시 : 통일염원 50년 3월 8일 오후 5시

어디서 : 공대 5호관 313호

통일세대 자주여성

제10대 자주총여학생회

## 여성임에 대하여

이나미

여성임은

남성보다 우수할 수 있음을 애써 증명하기위함도 아니고  
기껏 남성과 평등함을 주장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성임은

열성도 우성도 아닌, 하나의 개성이어야 합니다.

여성임은

때에 따라선 강자보다 더욱 강한 자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강자가 되기위해 약자임을 부정함이 아닙니다.

여성임은

강자와 약자의 시비를 떠나 존재하는 바로 '나' 이어야 합니다.

## 차례

여론서-----	1
인사말-----	2
'3.8 세계여성의 날'이란 무엇인가-----	4
우리 단대는 어떻게 살아야-----	9
95년의 의미는-----	12
홍노선-----	16
종교학생회는 어떻게 살아야-----	19
부서별 사업 계획서-----	22
알아 봅시다1 - 여인을 잘알려면-----	25
알아 봅시다2 - 우리들의 조직-----	26
작중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	28

## 전여대회를 맞이하여 .....

### 총여학생회장 박경아

유래없는 가뭄으로 온 국민이 시름에 겨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개강을 맞은 교정에는 새내기학 현내기가 내뿜는 열기로 활기를 되찾은 듯  
합니다.

개강사업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경북대학교 여대표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2 회 전여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경북대 여학생 운동을 고취하고  
여학생회를 굳건히 세우시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잘 될까'라는 의문반 기대반으로 시작되었던 제 1 회 전여대회를 훌륭히 성사시켜  
내었고

이제 제 2 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3.8세계 여성의 날에 개최되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여대표들의 결의를 다지는 장이라는 점에서 정말 뜻깊은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여학생회의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차리지 않는다면

그간 선배님들의 피한 땀과 눈물로 세운 여학생회는

모래탕처럼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전여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여대표님들이 더욱 힘내서 경북대 여학생 운동을 한번  
살려보도록 합시다.

## 대회 순서

### 1부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 # 개회 선언
- # 대회사
- # 여성시 낭송
- # 3.8의 유래와 현재적 의미
- # 우리들의 결의

### 2부 - 전여대회 본식

- # 개회 선언
- # 내빈 인사
- # 각 단대 운영위 인사
- # 총여학생회 간부 인준
- # 총노선 발제 및 토론
- # 1년 사업 발제 및 토론
- # 우리들의 결의

### 3부 - 선배와 함께 과여학을 이야기해 봅시다.

### 4부 - 건강한 뒤편이 시간

#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왜! 왜! 전여대회를 이 날 개최하는가?!

다시 한번 ‘3.8 세계 여성의 날’을 되짚어 봅시다.

그리고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앞으로의 경대여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단결하여 일어섭시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학생회의 위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열악했던 1857년에 일어났던 여성노동자들의 단결 투쟁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 날 전여대회를 개최하여 경대 여학생회의 역량을 하나된 힘으로 모읍시다. 우릴는 할 수 있습니다.

## 1.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

1857년 3월 8일 뉴욕의 섬유업계 여직공들이 하루 12시간의 중노동과 저임금에 항의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으나, 무참히 경찰에 의해 탄압당하였고 1860년 3월에는 여성들이 자신들만의 노조를 결성하여 요구가 관철되도록 촉구하였으며,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여성섬유노동자들이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저임금, 사람을 죽이는 작업량 및 위험한 작업설비 등 가혹한 노동조건에 반대했고 어린이들르에 대한 착취를 중단할 것과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이리하여 전 여성의류산업, 남성의류산업부분으로 확대되고 끝내 전 의류 노동자들의 단결로 이어지면서 의류 노동자연합을 탄생시켰다.

1910년 2차 노동여성 국제회의에서는 미국 섬유노동운동의 도화선이 된 3.8 시위를 매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후 매년 3월 8일이 되면 세계 각국의 수천만명이 노동여성투쟁의 날로 기념해 왔다.

이날은 사회의 어느분야에서나 소외되어 왔고 지배자들이 강요한 권위의식에 짓눌려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눈뜨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단결투쟁으로 일어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2. 우리나라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 진행과정

1911년 최초의 ‘세계 여성의 날’이 시작된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기념대회를 열었는데 북한에서도 1910년 이래 여맹을 비롯한 전 여성들이 함께 모여 3월 8일을 ‘국제 부녀절’로 기념하여 그 기념대회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기념대회를 가졌으며 기층 민주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연을 열기도 했다. 이후 세계 여성의 날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다시 부활된 것은 1985년 여성단체에 위해서이다.

1985년 제 1회로 '민족, 민주, 민중이 함께하는 여성운동'을 선언하여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남녀 평등의 민주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정치 의식 고양과 전체 여성의 힘을 결집할 것을 주장하게 된다.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책을 노골화하는 미국과 노태우 일당에 맞서 각 계급 계층별 여성은 자주적인 조직을 결성하여 대응해 왔다.

1986년 제 2회에서는 '민주화와 여성의 생존권'이라는 주제로 20여 여성단체들이 기층 여성의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고 KBS시청료 폐지운동을 벌여 나감으로서 가정주부들의 대거참여가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이전의 개개 사건에 대한 여성단체간의 연대강화, 어용단체나 개량적 여성단체와 구별되는 여성 단체연합의 통일된 행동, 기층 여성문제와 사회문제에의 적극참여 등은 기존의 여성해방운동의 한계를 한단계 극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제 3회에는 '민족현실과 여성운동'이라는 주제로 행해졌다. 86년 아시아 올림픽과 남북분단,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입개방압력, 군부독재의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한 장기적 음모 등의 국내외적 현실에 대응하는 여성운동의 과제를 대중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전 활동의 모색, 여성운동의 방향정립, 통일적 입장하의 연대활동의 모색, 민족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여성운동의 역할 등의 모색과 더불어 생존권 확보와 남녀평등권 쟁취라고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갔다.

1988년 제 4회 대회는 '여성이어! 민족 자주화의 대열로'라는 기치하에 또다시 자행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경제, 군사침략에 따른 민중의 생존권 문제와 여성의 성적 폭행, 성 상품화, 에이즈의 문제를 88년도의 여성운동의 문제로 설정하였다.

1989년 이후 지금까지의 3.8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성운동의 과제를 밝히고 연대 활동을 다지는 날로 소 자리매김하고 있다.

### 3. '3.8 세계 여성의 날'의 현재적 의미

1908년 3월 8일 거세게 일어났던 여성노동자들의 요구가 8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우리 여성들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째를 맞아 지난 2년동안의 김영삼정권의 국정운영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UR협상에 대한 사대예속적인 대응, 상무대비리, 이회창총리사건, 지존파사건, 성수대교 붕괴, 세금비리등 많은 실정과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은 한계에 다다라 허구적인 세계화 논리속에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에 통과된 성폭력 특별법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남아있으며 친고죄 적용은 부분적으로만 폐쇄되었을 뿐이다. 그

리고 모성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유급생리휴가를 정부는 무급제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노동자들의 모성을 아예 보호 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인간적인 발상에 다름아니며, 일하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할 탁아소의 지원과 확충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제는 생화 가까이서 여성문제에 부딪치며 살아온 여성들의 소리가 그 해결의 실마리로 퍼져 나올 때이다. 외세의 손끝에 짓눌려 왔고 모성보호라는 미명하에 일터에서도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절박한 소리가 하나된 힘으로 울려 나와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자치화의 시대를 맞아 나라 구석구석의 살림을 꾸리면서 주민의 이해와 정서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온 주부들의 구체적이고 알뜰한 생활모습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지자체 선거에 대한 벅찬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식의 지속적인 여론 공세를 지자체 선거를 파행으로 몰고가려 하였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민자당의 음모를 분쇄하여 오는 6월 27일 지자체 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여성의 단결된 힘으로 정부와 민자당을 강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결의문

경북대 여학생회는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실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여성문제 외부확산, 성폭력 추방 운동, 윤금이씨 사건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운동, 물갈이 운동 등등. 우리 여학생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의 모든 비민주적 구조에 대항하여 싸워 왔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87년전 3월 8일 '빵과 선거권'을 요구하며 일어섰던 여성들의 의지와 노력을 다시한번 생각하며 95년 통일원년을 맞는 그리고 21세기를 향하는 현재 경북대 여학생운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새겨보자.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지방의회로의 여성의 진출이 시급하다.

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의회진출은 여성운동세력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올바른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의사와 요구가 정책결정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주민 투표제, 주민 발의제 실시를 더욱 요구한다.

특히 그동안 정치에 소외되어왔던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제, 공천할당제의 실시를 요구하며 이번 선거에서 여성진출은 물론 의회의 여성의석 20%확보를 위해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노력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문화를 거부하며 학내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추방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이루어낸다.

그동안 여학생회에서 성폭력추방 사업을 힘있게 벌여내왔지만 아직도 여학우 혼자 밥길 다니기가 무섭다. 이에 좀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 학원내에서 성폭력, 퇴폐 향락문화 그리고 군사문화의 잔재인 폭력문화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다.

셋째, 우리 여학우들은 장차 이땅, 미래의 어머니이다. 여성들의 모성보호, 안전한 노동권 인정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기르기 위한 방편으



로 학원내 직장탁아소 설치를 요구한다.

학원은 교수, 교직원, 학생 3주체로 이루어진다. 우리 학교 노조원들의 90%이상이 여성인 점을 봐서도 알수 있듯이 탁아문제는 개인의 일로 치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리 여학생회에서는 어머니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노조와 연대하여 학원내 직장탁아소 설립에 노력을 다한다.

네째, 일관성 없고 아무 대책없는 여성정책을 펼치는 김영삼 정권을 반대한다.

김정권이 문민정부라고 주장하지만 다른것은 제쳐두고라도 여성정책만을 봐서도 그들에게서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더이상의 개혁의 의지가 없는 여성정책에 관한한 거의 무지한 김영삼 정권을 반대한다.

다섯째, 퇴폐 향락문화의 온상지 성폭력 에이즈근단 주한미군을 반대한다.

아직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윤금이씨의 죽음을.

미군은 이땅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당하는 피해는 가히 엄청난 수치이다. 이에 우리는 이땅 여성들을 짓밟는 미군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에 힘쓸 것이다.

**1995년 3월 8일 여성의 날 기념식**  
**참가자 일동**

## 우리단대는요

각단대 여학생회마다 힘들만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지금,  
한번 단대의 올해생활의 계획을 들여다볼까요.

**인문대(950-6970)**

### 여학생회를 여학생회답게

#### <기본과제>

1. 여학생회의 위상 재정립 - 여학생회 우리 자리 찾기
2. 생활에서의 혁신
3. 사업에서 여학우들 속으로

1995년은 인문여학이 생겨난지 10년하고도 1년을 더 맞이하는 해이다. 처음 인문여학이 출범했을때에 비한다면 지금의 모습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이 발전했음에 틀림없다. 또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도 다른 단대에 비해 높고 여학생회 체계 또한 가히 경북대의 모범으로 우뚝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선거때만 되면 심심치 않게 각 과에서는 여학생회 폐지론, 불필요론이 등장된다. 대다수 여학우들이 여학생회 대해 긍정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일까

여기서부터 여학생회의 고민을 새롭게 하고 체계만 거대해지고 알맹이 없는 여학생회가 아니라 선배들의 뜻을 버리지 않고 학우들속에서 변화하는 인문여학의 초석을 마련할 것입니다.

#### <1년 사업 계획서>

- 2월 --- 간부학교, 총노선 토론 및 수립, 과OT 지도
- 3월 --- 대동학교, 과여학생대면식 지도, 단대 모고지, 전여대회
- 4월 --- 여연의 날, 단대 출범식, 인문여성 10호준비
- 5월 --- 인문여성10호 발간, 이동 여학생회
- 6월 --- 농활 준비(아동반, 여성농민반)
- 7월 --- 상반기 평가 여학생회 일꾼학교
- 8월 --- 인문여성 11호 준비, 범민족대회
- 9월 --- 인문여성 11호 출간
- 10월 -- 학맥제 준비, 취업세미나, 여연 공부자료집 발간
- 11월 -- 1년 평가

**농대(950-6976)**

## 농대 여학생회의 우리자리 찾기.

### <기본 과제>

1. 과여학생회의 지위와 역할 찾기
2. 소모임 강화
3. 일상사업의 지속성

와성골의 농대 여학생회가 올해로 10살이 됩니다. 이제는 나의 할일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학생회 하고 학생회하고 뭐가 다른데?' '자기들 끼리는 억수로 바쁜것 같은데 같이하고 싶은데 뭐해야 될지 모르겠다' 올95년은 장미원, 과방, 강의실 와성골 곳곳에서 학우들과 함께 하는 여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와성골 여학우의 삶을 1300여학우 한사람 한사람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 봅시다.

#### --과여학생회의 지위와 역할 찾기

와성 여학우들이 가장 가까이서 보는 여학생회, 바로 각과여학생회장님일것입니다. 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마다 꼼꼼하게 챙기고 신경쓰는 여학생회장이지만 실제로 과에 여학우들을 하나로 묶어 세우고 그 속에서 할일을 찾아 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농대에서는 입공과, 식공과 농공과 등이 여학생회장만이 아닌 여학생회를 꾸리려합니다. 과에서부터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모으고 자주여성의 삶을 고민해 갑니다.

#### --소모임 건설 강화

식공과의 '파란색', 농경과의 '어깨동무' 하는 여성문제 연구소모임이 있습니다. 여대생 취업난, 성폭력 등 여성문제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이의 고민, 이제 곧 나의 고민이 될 탁아의 문제, 대구에 3개 있는 비영리 탁아소 중 '디딤 탁아방'을 통해서 탁아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아가는 것이 탁아 소모임입니다. 실제적으로 탁아소에서 필요한 도움도 주구요.

여연이나 탁아는 당당한 자주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알아가고 나를 변화 발전시켜내는 장입니다.

#### --일상사업의 지속성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여학생회를 얘기하지만 큰 기획사업이외에 학우의 진지한 생활을 담아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여학우들의 1학년때부터 고민인 취업, 복문 밖 술집, 당구장에서는 얼굴 붉어지는 야한 달력과 포스터들. 매시기의 여성 정세(올 지자체 선거에는 여성 후보들이 많다던데)등 당당한 주주 여성의 직접적인 생활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풀어갑니다.

아직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많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의실, 과방, 장미원에서 학우여러분을 만나면서 고민을 더 풍부하게 하겠습니다. 농대 각과 여학생회장들 그리고 집행부님들, 95년 당당한 주주여성의 삶을 하나씩 알아가는 해로 열심히 삽시다.!!

## 여학생회의 제자리 찾기

1. 대중사업 : 전체 정세를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여학생회의 위상강화를 꾀한다.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행사를 통한 의식화

① 내용 : 전체--> 지자체와 통일

사범대--> 사범대의 발전전망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특히 올해에는 여학에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적 취업유도' 부분을 공식화 해낸다.

1학기: 조사(과 상황) 연구

2학기: 기획자보등의 다양한 형태로 외화

② 행사 : 총여와--> 대동학교, 전여대협 출범식(한총련 출범식)

단여-->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므로 대중사업보다는 일상사업 중심

2학기때 '강연'-->

여고사에 대한 내용, 과와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2. 일상사업 : 부서별 제자리 찾기와 운위의 내실화

① 부서별 제자리 찾기--> 전문성, 책임감 높임

총무기획부 : 집행부 안정화를 위해 집행관리, 재정, 복지중심으로

선전부 : 기본적인 여학생회 알림 선전과 기획자보(여성학, 정세) 중심

여연부 : 여연을 통해 여성문제의 인식을 높여가자.

건설된 과 여연중심으로 새로유능 과 여연건설과 강화하는데 노력

탁아부 : 과 소모임 건설을 기반으로 탁아운동의 내용을 담아내고 소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

② 운위의 내실화--> 운영위의 질적 발전, 부회장의 여학운위 참여자체를 안정화

운위 평가서 : 함께 만들어가는 운위

교양실시

부회장이 과모임 주체로 : 부회장님들이 특별한 자신의 일을 가짐으로 해서 과내에서 자신의 영역확보--> 부회장주도의 과 모임을 열수 있도록 이끌어 낸다.

(여학우 단합대회, 여연, 탁아소모임)

과별정책 : 현재 조건이 가능한 몇개과를 중심으로 17개과내에서 모범과 발굴위해

# 95년 정세전망

## 1. 시기규정

(1) 95년은 전세계적으로 냉전질서의 해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를 모색하는 시기이며 민족사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여 통일조국을 건설하느냐 분단을 지속하느냐를 가르는 민족사의 대전환기입니다.

냉전해체와 이에 따른 세계질서는 지역주의의 강화와 민족주의의 대두, 경제적 실리추구 강화라는 변화를 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이제 과거에 중요하게 국력의 척도로 여겨지던 영토의 크기, 인구, 보존자원등의 전통적 가치 보다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크기, 정보의 가치와 양등이 오히려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에서 전통적으로 추구되어 오던 냉전질서는 조미관계 개선으로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으며 주변강국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동북아에서 새로운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정세의 이러한 변화는 우리 민족이 그동안 진행해오던 민족대결과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민족화해와 민족대단결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질서의 변화는 과거 민중들의 의식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던 냉전의 상처를 지우고 통일을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민족적 대세로 인식하게 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이 분출되고 있으며 분단 50주년을 계기로 하여 통일조국 건설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때 보다 강렬하게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95년 민중들 사이에는 분단 50주년 해방 50주년을 맞아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 되고 있습니다.

(2)한국사회변혁운동은 자주,민주,통일 투쟁이 더욱 총체화되고 있으며 95년 총력을 통일구국투쟁으로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은 자주,민주,통일투쟁을 강령적인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연관과 독자성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민통 투쟁은 더욱 총체화되고 있으며 95년 자민통 투쟁의 총체화는 반민주,반통일,반민중적인 김영삼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을 다양한 계기와 조건을 살려 더욱 활성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95년 민족사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애국통일역량의 대단합을 통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으로 90년대 통일조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창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95년은 지난 한총련 운동의 성과과 한계를 울곧게 계승하면서 백만학우에 근거하여 한총련을 중심으로 통크게 단결하고 90년대 통일조국 실현의 선봉장이 되

기를 요구하고 있다.

기간 한총련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로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실현하여 왔습니다.

제3기 한총련은 이제 민족사적 전환기에 대한 깊이있는 시대인식을 기초로 지난 시기 국구운동의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해온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3기 한총련은 간부중심의 사업작풍을 극복하고 백만학우를 한총련 운동의 중심으로 세워내며 한총련을 중심으로 통크게 단결하여 90년대 통일조국 건설의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 2. 국내정세

### (1)주체정세

#### ①미국과 김영삼정권에 대한 학우들과 국민들의 인식

U.R투쟁과 북핵공방 과정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김영삼정권의 집권초기 허구적인 개혁과 국제화, 개방화등의 사상이데올로기적 공세로 부터 벗어나 국민대중들 사이에 민족자주의식과 반김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족자주의식은 반미의식으로 뚜렷하게 집중되고 있지 못하며 반김의식은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증폭되고 있으나 민민권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기 보다 기간 진행된 한국자본주의의 기형적 발전과 김영삼정권의 태생적 한계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함으로해서 반김의식이 하나의 전선으로 단일하게 묶이지 못하고 있으며 민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못하다.

#### ②대학사회에 대한 진단

대학사회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다양한 이데올로기 공세- 개인주의, 이기주의, 민족허무주의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건간한 대학인, 대학문화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 학우들사이에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U.R투쟁과정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시기 학우들 사이에는 초보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애국심과 민족자주의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학우들의 정치의식이 반미, 반정부의식으로 지속적으로 승화 발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이러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학우들의 정치의식을 선도하는 간부와 학생회가 학우들 속에 우뚝 서 있지 못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③민족민주운동세력의 주체역량

민족민주운동은 95년 지사체와 통일투쟁을 중여한 계기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 -전선운동

전선운동은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김영삼정권 집권 초기의 허구적 개혁과 국제화 개방화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투쟁력을 회복하고 있으며 질양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미 반김의식을 하나로 묶어내고 95년 조국의 통일을 전진시키기 위한 투쟁과 급변하고 있는 정치질서에 대한 민민권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연합의 정치력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

기간 진행된 노동운동의 성과가 민주노총 건설로 모아지고 있으며 올해 노동운동은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투쟁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배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운동

농민운동은 U.R투쟁의 연장선에서 WTO출범에 직면하여 이행법을 둘러싼 투쟁과 농정개혁7대과제를 실질적으로 획득해내는 투쟁을 중심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농민의 처지를 둘러싼 구조개혁과 새로운 대안과 전망을 모색해야 하는 조정국면에 처하고 있다.

(2)객관정세

①김영삼정권의 정국운영 방향

김영삼정권은 지자체 정국의 승리를 통해 집권 중하반기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 하고 있다.

지자체 선거는 96년 총선, 97년 대선으로 가는 권력재편의 초입으로 지자체에 대한 결과에 따라 이후 권력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다.

현재 정국은 지자체 국면으로 가고 있으며 정치권은 기득권유지를 위한 정계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영삼은 세계화논리를 앞세우며 자신을 중심으로 민자당의 새로운 판을 형성하고 있으며 출당한 김종필은 충청권의 지역감정을 불모로 새로운 대회전을 준비하고 있고 박철언은 대구의 반민자정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분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계개편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젊은 층을 중심으로하여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일례로 한 일간지의 의식조사 결과 여론주도층이나 청년들사이에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정계개편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기반으로 지자체 문제에 대한 정세개입을 시도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을 계속적으로 높여감으로써 김영삼정권의 집권 중하반기의 구도를 분쇄하여야 한다.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가지고 건강한 국민대중의 의식흐름을 장악하기만 한다면 정세에서의 변화는 대단히 탄력적일 수 있으며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참신함과 도덕성이 국민대중들 사이에 새로운 대안으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해방 50주년 분단50주년을 계기로 서서히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일열기를 사상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하여 호도하려 하고 있으며 집권 안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해방50주년 분단50주년을 계기로 서서히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민족이 화해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기간의 주장이 서서히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영삼정권은 이러한 통일에 국민적 여론을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맞이할 대신 오히려 세계화논리, 이승만과 나라세우기등 다양한 사상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호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50년을 맞이하여 전국민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통일기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 김영삼정권은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오히려 집권안정화를 이를 계기로 적극 활용하려는 반통일적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 ②우리의 대응방향

95년 김영삼정권에 대한 대응은 95년이 민족사적 대전환기라는 시대인식속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95년은 95년이 가지는 의미보다 오히려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향후 우리 민족운명의 향방을 가르는 시기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95년 우리의 대응은 95년 자체에 대한 근시안적 대비보다 이후 통일조국을 예비하여 민족사적 전환기에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가 하는가의 큰 관점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95년 김영삼정권에 대한 대응은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간 정권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당위적 구호나 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정권에 대한 활동방식도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새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정세를 따라 잡을 수 없으며 정세적 과급력을 가질 수 없다.

95년 김영삼정권에 대한 대응은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심화될 때 자민통 투쟁을 총체적으로 전개한다는 관점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지금의 정세는 과거와 같은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전선으로만은 포괄될 수 없는 민중들의 다양한 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기간 진행된 우리 투쟁의 성과이며 주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주체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은 반독재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민통 전선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민중들의 다양한 진출을 하나의 정치역량-전국연합-으로 묶어세우고 있지 못한 것이 민민운의 정치 조직적 과제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 ③소결

95년 김영삼정권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민족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총체화되고 있는 자민통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과거와 같은 폭로와 타격 위주의 활동 방향을 지향하고 보다 역동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새로운 세기를 예비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 제10대 자주 총여학생회 총노선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여학운은 지난시기 정세에 기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여학운 본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당면해서 반미 반김 의식의 확산과 통일운동을 상승발전시키는 투쟁의 정세속에서 우리 여학운에 부여된 여성자주화 관점에 입각한 우리의 내용으로 조직공간을 탄탄히 세워내고 이를 통한 기본운동역량강화라는 부문운동으로의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

95년은 하마디로 통일의 해이다.

서태지에서 하물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통일을 얘기하며 준비하고 있다. 통일조국의 건설이나 아니면 분단의 지속이냐라는 점에서 우리는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서있다.

이런 급변한 정세속에서 과연 우리 여학생운동은 어떤 임무를 가지는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6월 27일 다가온 지자체 선거에서의 우리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 “여학생회 우리자리찾기”

### 기본과제

- 1.여학생회의 위상을 다시한번 세운다.
- 2.여학생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계속적으로 생산한다.
- 3.부서별 전문성, 독자성을 강화한다.
- 4.일관성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

1.여학생회의 위상을 다시한번 세운다.

경북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이제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음악감상실을 운영하는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여 단대여학생회, 과여학생회의 골간체계를 마련하고 2만 복현학우들에게 여성문제 인식을 확산시켰다는 측면에서 기간 총여학생회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우들사이에서는 ‘여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지?’, ‘여학생회가 필요한가?’라는 물음과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으며 선거때만되면 ‘부체계, 위원회 체계’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물며 여학생회 간부들조차도 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 그저 막연히 있어야 되지않겠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것이 대부분이었다.

여학생회의 고민없이 그저 세워놓고보자는 식의 무리한 욕심으로 여학생회를 건걸

해놓고 몇년도 안되어 무너져버렸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94년에도 자연대 여학생회가 사람마련이 되지 않아 여학생회를 건설하지 못하였고, 수의대 여학생회도 문을 닫게 되었다. 이제 과감히 말한다.

지금은 '여학생회 위기시대'이다.

올해 바로잡지 못한다면 몇 년안에 경북대 여학생운동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만약 여학생회가 있다 하더라도 허수아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하자.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7천여학우의 조직 '여학생회'를 바로세우도록 하자.

### 1) 칠천 여학우가 생각하는 가장 대중적인 사업 마련

지금 여학생회는 대중행사사업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다.

작년 경우에만 보더라도 '여학생회 일꾼학교'를 시작으로 '예비대학', '전여대회', '대동학교' 등등 열손가락으로 모자랄 정도로 많은 대중행사를 치루어 내었다.

준비되지 못한, 학우들과 합의되지 못한 사업들은 결국 외면받게 되어있다. 돈과 시간과 간부들의 힘을 빼버리는 무리한 대중사업, 이제는 끝을 내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왜'라는 물음을 가지자. 7천여학우와 합의하는 가장 필요한 가장 대중적인 사업을 실현해 내도록한다.

### 2) 여학생운동을 하는 간부로서의 역할 규정

여학생회 간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과여학생회장들은 때로는 학생회 집행부처럼 이것저것 하다가도 때로는 여학생회장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갖게 된다. 여학생회와 학생회가 하는 일이 똑같다면 굳이 여학생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여학생회 간부들은 모두 학생회 간부들이다. 그러나 학생회 집행부들은 아니어야 한다.

여학운을 하는 간부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고민과 사업내용을 마련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전체운동에 복무하고 학생회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일 것이다.

### 3) 전교여학생 대표자회의의 질적 발전

전교여학생대표자회의는 몇몇 간부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듣기위한 자리다. 94년 처음으로 성사시킨 전여대회를 이제 질적 발전을 꾀하도록한다.

전여대회가 진정 7천 여학우를 대표하는 의결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 2. 여학생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계속적으로 생산한다.

### 1) 지속적 간부교양 실시

여학생회 간부들조차도 '여학생운동'이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하는 이가 적다. 지금까지 간부교양은 '여연'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거나 각단위에서 알아서 하는 식으로 내버려두는 것이 사실이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학 간부들은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양한번 받아본적이 없다. 머리는 채워 지지않은체 늘 힘(?)

만 쓰는 간부들의 모습.

이제는 달라집니다.

2) 여학운을 하는 간부로서의 자긍심 고양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은 몇년전부터 계속되어온 말이었다.

그런 자긍심은 말만을 되풀이 한다고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여학생운동의 확실한 이해, 여학생운동의 필요성을 이해할때 여학운을 하는 간부들의 단결력이 뒷받침될때 자긍심은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여학생운동을 하는 간부들도 4년, 5년을 힘차게 결의하는 간부들이 창출될 것이다.

3. 부서별, 전문성, 독자성을 강화한다.

1) 부서별 핵심 사업의 정형 마련

1년이 지나고나면 부서장들은 분명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자기 핵심사업을 얘기하기가 참 힘들다. 이제 부서는 자기일에 한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부서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핵심사업을 찾아내고 이의 정형을 마련한다.

2) 부서별 일상사업의 지속화

일상사업은 성과가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 성과물은 1년후 아니 몇년 후에야 드러나는 거이므로 많은 인내력이 필요하다. 부서장들은 실무간부가 아니라 이제는 정책간부가 되어야 한다. 부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일상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4. 일관성있는 사업을 진행한다.

1) 단위와의 일관성있는 체계 마련

단대 여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핵심기조는 분명 맥을 같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총여와 단위와의 체계가 달라 총여의 고민이 단위로 내려가지 못하고 단위의 고민을 총여가 받아안을 수 없었다. 이제 총여와 단위가 일관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함께하는 사업기풍을 마련하도록 한다.

2) 단대 여학의 과여학 지도력 확보

모든 과 여학의 상황이나 수준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과 여학의 고민을 받아안기에는 덩치큰 총여학생회는 무리이다. 단대의 자립 자활력을 높이는 길은 바로 단대여학이 과여학을 지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바로 첫번째 방안이다. 과여학생회의 발전이야말로 단대여학생회의 발전이고 각 단대 여학생회의 발전은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 제10대 자주 총여학생회 1년 사업계획서

지금까지 총여학생회가 10대 이어오면서 손에 꼽을수 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를 해왔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 여학우들의 자주성 발향을 해내었다.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많은 그리고 규모가 큰 행사를 하다보니 여학우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준비하는 간부들 또한 힘이들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과감히 말한다.

이제 힘빼기식 사업도 터트리기식 사업도 버리고자 한다. 모든 간부들이 자신들의 내용을 갖고 전문적인 사업, 운동을 펼칠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간부로서 주변에 대중을 만들 수 있는 여건마련에 노력 할것이다.

## 1월 간부인선

### 간부그양

## 2월 새로배움터

### 일꾼학교

## 3월 개강인사

###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 전여학생대표자회의

- 총여학생회를 7천 여학우의 대표조직으로 합의하는 장으로
- 여학간부들의 질적 도약을 담보하게 하는 장으로
- 여학운을 함께 고민하고 합의하는 장으로
- 1년의 사업을 학우들에게 검증받는 장으로

### 여성문화제

- 지금까지 총여학생회가 새내기 위주의 사업만을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속에서 복현 7000여학우들의 문화요구를 풀어 내는 자리로서

### 대동학교

- 새내기에게 20년동안 살면서 느꼈던 아니면 느끼지못했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자리로서, 단순히 여성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안니라 그대안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배우는 장으로서, 새내기 한달간의 생활을 총화 하는 자리로서

4월 3월 행사를 통해 던져준 문제의식들과 요구, 지향들을 각 부서별로 총화하는 자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고민을 던져주는 부서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부서 사업 진행시기

## 5월 건전한 복원문화 형성 합의시기

- 학우들과 함께 대학 주변문화, 광고들에 관한 토론회등을 단

위에서 실시함으로써 학우들과 물갈이 투쟁의 의의를 함의하  
면서 1년을 함께 하는 달

**6월 농활 준비기**

**지자체 선거**

**6,10 학생의 날 행사**

**7월 1학기 사업 평가 정리의 달**

**8월 2학기 입문학교**

- 1학기 일꾼학교가 별도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과 한학기 사업  
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면서 여학간부들을 재정비하는 자리로  
서의 일꾼학교를 진행하려한다.

**9월 2학기 개강인사**

**1학기 사업평가보고**

**단위별 취업준비**

- 지금까지는 취업이 여대생의 가장 큰 요구이며 지향으로 받  
아들여져 중앙단위나 하부단위나 아니면 취업정보센터에서도  
나름의 기준과 판단으로 세미나나 강연이나 기업설명회등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사람마다의 요구들을 중앙단위에서 풀기  
에는 너무나 다양했다. 올해 만큼은 단위 여학우들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을 해야 할것  
이다.

**10월 은금이씨 3주기**

**11월**

## 95년 제 10대 총여학생회 일상 핵심사업

### 1. 취업을 단위에 맞게, 전문적으로

여학생회가 분명 학원을 취업의 전담으로 만드는 곳은 아니다. 또한 취업에 관한 부분만을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하지만 현실이 여대생들에게 취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만 한다.

대학은 그리고 여학생회는 학우들의 이러한 요구에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현재 경북대에는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취업 상담자가 있으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대생 취업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여대생의 취업난이 현 사회 제반의 문제일진대 전문인력이 아닌 사람이 현실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문제만을 알리는 것이 해결책마련을 동반할 수 있겠는가?

취업정보센터내에 전문인력은 경대 7000여학우의 취업에 대한 요구를 전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총여학생회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인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또한 단대별로 여학우들의 요구를 받아 단대에서 취업세미나를 개최하며 취업상담소를 통해 기업설명회를 확대유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각 단대별 취업세미나, 취업간담회 개최**

#### **기업설명회 확대유치**

#### **PC통신망을 통한 일상적 취업정보 확보**

### 2.육아의 사회화와 올바른 육아를 위한 탁아소의 필요

올바른 육아와 육아의 사회화가 바로 국제화시대 우리나라의 운명과 일치할 것이다. 현재 대구지역 직장탁아소를 갖춘곳이 2곳이라고 본다며나 중장기적 전망을 갖고 직장내 탁아소 설치에 대한 고민을 해 볼시기이다. 학내에 탁아소를 갖춘곳은 북비산 국민학교밖에 없다.

교사의 자녀를 맡는 탁아소를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경북대에도 여교직원이 50여명이나된다. 또한 교수의 자녀, 강사, 학생부부, 대학원생들까지 포함하면 탁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하게 된다. 학교의 주체가 교수, 교직원, 학생이므로 이 3주체의 요구로서 직장내 탁아소 설치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일의 능률적 측면에 있어 그리고 효율성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올해 총여학생회는 노동조합위원회와 함께 연대 하면서 직장탁아소 설치를 준비할 것이다.

#### **학내 직장탁아소 공간마련**

#### **전문교사 확보**

#### **자원봉사자 활동보장**

# 부서별사업계획서

## ##사무부##

### 1. 위상과 역할

사무부는 재정, 기획 및 단위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집행의 통일성을 담보해내기 위해 전체사업을 총화해내는 주체로서 집행총화를 담당한다. 또한 총여학생회 내부의 집행부원들간의 애정과 이해를 높이며 생활에 있어서 간부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 생활총화까지도 책임지기로 한다.

이에 따른 역할로는 전체 집행의 맥을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획을 먼저 고민하며 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재정 사업을 한다.

집행부회의를 주관하며 운위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운위에 결합한다.

### 2. 사업의 원칙

사람중심의 사업을 한다

기획사업은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아서 기획한다.

재정사업은 공개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업의 내용

#### 1)재정사업

사업계획에 기초한 재정의 확보

재정의 실정에 근거한 집행의 원칙

집행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는 것

예산 공개의 원칙

모든 부서는 사업 계획서와 예산 내역서를 미리 제출해서 전체사업에 대한 감과 책임을 집행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2)기획사업

준비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기조로 앞선 고민과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7천 여학우와 2만학우와 공유하고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자세로 세로모임을 안착화 시켜내고 기층과 같은 호흡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 ##연대사업부##

### 1. 들어가며

자 ~ 들어갑시데이.

### 2. 위상과 역할

총여학생회의 연사부는 사회 정치 부분의 정세를 시기시기 파악하여 여학운에 맞는 내용으로 간부들을 교양해 내고 여학생회에서 자칫 부족하기 쉬운 투쟁사안을 풍부하게 생산하는 부서이다.

총여에서 연사부는 여학생회가 여학운이 부문계열 운동으로서 전체 운동에 복무한다는 것을 여학일꾼들에게 제대로 풀어내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패배적 허무주의적 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특히,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모순속에서 특화시켜 긴박히 돌아가는 정세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며 단순히 총학에서 내려오는 문건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연사부는 전체 투쟁에 있어서의 원칙에 맞는 여학의 결합방도와 내용을 바로 틀어쥐고 우리의 내용을 가지고 전체 틀 속에서 복무하고자 한다.

### 3. 사업의 원칙

1) 전체 사안을 함께 풀어내되 여학생회의 전문성, 독자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사안이든 전체 여학일꾼이 합의를 통해 진행시킨다.

2) 신속한 정세 파악으로 간부들의 고양은 물론 정치선전을 진공적으로 해낸다.

3) 총노선과 현정세에 근거한 사업기조를 생산해 낸다.

### 4. 사업의 내용

1) 여학생회가 풀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조국통일 운동의 활성화  
여학생회가 할 수 있는 조국통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북한여성 바로알기' 운동을 통해 여학우들의 민족대단결 의식을 확산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여학우들의 인식확산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력 추방운동과 더불어 철수 운동을 벌여낸다.

#### 2) 지속적인 간부고양

정기적으로 여학생회 일꾼들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를 만들어 내고 언제나 목말라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고양해 내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간다.

#### 3) 시기별 정세파악

발빠른 정세 파악을 통해 시기시기 떨어지는 전체사안에 있어서의 총여의 결합정도나 의의를 여학생회에 맞게 풀어내며 여학간부들과 합의된 사안들을 신속한 정치선전을 통해 여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낸다.

#### 4) 여성단체와의 연계

지자체, 성폭력 문제, 물갈이 투쟁과 같은 경북대 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 여학생회와 여성단체와의 결합력을 높여낸다.

### 5. 나오며

총여학생회에서 새롭게 생긴 부서인 만큼 어떠한 정형도 없이 나름대로 사업의 정형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여학생회에서 연대사업부가 어떻게 활동해야 할 지 조금은 막막하기도 합니다.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신속히 말해주시고 부족한 점은 제기해 주시면 더욱 발전되는 연대사업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탁아부##

총여학생회의 부서들 중에서 탁아나 여연만큼이나 학우들속에서 뿌리내리고 인정받는 사업부서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탁아같은 경우는 여학우들뿐 아니라 남학우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탁아사업의 방식에 있어서는 몇년째 그자리를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학우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자봉단, 후원회 모집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탁아부에서는 거의 1년의 사업을 다한 것처럼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작년 경북대 내에서 올바른 탁아활동의 정형을 찾아내고자 시도했다면 올해는 이제 그 틀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자 한다.

#### 1. 사업의 목표



1) 세로모임의 강화를 통해 단위 탁아부장들의 지도력을 높여 경북대 탁아활동의 내용성을 담보한다.

2) 탁특위의 재건을 통해 좀더 학우들에 근거한 탁아활동들을 고민하고 창조해내며 그 속에서 탁아의 대중화를 실현한다.

## 2. 사업의 원칙

1) 탁아의 전문성, 독자성에 매몰되지 않는다.

2) 탁아를 일회성 기획사업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 3. 사업의 내용

### 1) 내용성 강화

세로모임을 정기화 시켜내고 단지 기획사업구상을 하는 곳이 아니라 탁아활동의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단위로 정착시킨다.

### 2) 탁아활동의 정형 마련

올바른 탁아전망에 입각하여 탁특위를 강화해내고 기존의 그저 학우들을 자봉이나 후원회활동에서 대상화 시켜냈던 것을 과감히 버리고 경북대 실정에 맞고 학우들이 누구나 쉽고 기쁘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탁아활동 정형을 마련한다.

### 3) 탁아소모임을 발전적으로

학우들의 자발적인 요구로 만들어졌던 탁아소모임들이 내용의 부재속에서 점차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과마다 주체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른채 일년을 넘기기가 일수다. 탁아소모임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단위를 만들어 일회성 소모임의 모습을 탈피 할 것이다.

### 4) 게시판을 내집으로

어떤 기획행사때만 반짝하는 탁아자보, 탁아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탁아에 관한 내용들을 선전해내며 학우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뿌리내린다.

### 5) 대탁연계행사사업을 주도적으로 참가한다.

대탁행사에 그저 몸대주는 식의 참가가 아니라 그 행사의 고민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여학생회 어느 부서보다 빵빵한 부서가 바로 탁아부서일 것이다. 단위마다 주체가 마련되어 있고(과에서도) 무엇보다 학우들의 가장 생활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다.

단위 간부들의 결의도 높아 방학부터 열심히 95년을 준비했던 만큼 진정 혁신하는 탁아부의 모습으로 학우들과 함께할 것이다.

# 알아봅시다1

## - 여연을 잘할데 대하여..

### (1) 여연장과 고사는

1) 학습에 있어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해 줄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현상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예를 들어, 한겨레신문, 여성신문을 매일매일 읽고 이야기해준다거나 서점에 자주 들러 새로운 내용들을 빨리 접한다거나 하는 등등)과와 고내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성원들에게도 활동성을 고양시켜 줄수 있어야 합니다.

2) 자신의 의견과 반대될지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풍부한 내용으로 이끌어 내도록 합시다.

3) 토론할 때 절대로 주도권을 잡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이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4) 모든 운영에 있어 모두가 주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총무, 서기, 편집부원...)

### (2) 여연 구성원들은

1) 공부한 내용들을 생활속의 작은부분에서부터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음담패설 안하기, 스포츠 신문 안보기...)

2) 학습 준비에 입합에 있어 책에다 줄긋는 것에서 벗어나 리포트 작성을 합니다.

단 몇줄이라도 정리해서 오는 습관, 이런 것이 모인다면 나중에는 훌륭한 자료가 되겠지요?

3) 그 날 공부하고 토론한 것을 기록해 둡니다.

4) 학습한 내용을 항상 공개자보화하고 그외의 여성문제에 관해 학우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소식지, 자보, 신문등을 내도록 합니다.

### (3) 여연 운영에 있어서는

1) 어떤 모임이든지 구성원들의 끈끈한 유대감이야말로 모임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학습후에는 꼭 뒷풀이를 합니다.

잔디밭에서 과자를 함께 먹는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돈과 시간이 된다면 밥이나 술도 한잔...

2) 규칙을 정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하고 어겼을 경우 가벼운 벌칙도 괜찮을 것입니다.

예) 지각 - 500원 --> 책을 사거나 이후 소식지발간에 보태도록

3) 딱딱한 강의실에서만이 아닌 자연에서 공부할..

야유회나 모꼬지를 통한 여연인들의 살부비기 어때요? 정도 쌓이겠지요?

4) 생일을 꼭 챙기자

서로의 생일을 꼭 기억하고 챙겨주며 꽃 한송이, 편지한통이라도 주고받아 서로의 정을 확인합니다.

## 알아봅시다2

### - 우리들의 조직

과(여)학생회는 그나마 나의 생활 가까이에 있고 뭐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어도 내가 속한 조직인 것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확대되어 나가서 단대(여)학생회나 총(여)학생회, 나아가 대경총련이나 대경여대협이라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뭘지 왜 있어야하는지 그저 당연히 있었으니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욱이 한총련, 전여대협을 이야기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무서운(?) 운동권만의 조직 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조직으로 우리의 생각은 굳어져 갑니다.

이제 이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위해서 이 글을 미숙하나마 읽어갔으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가장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학년(여)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과의 일을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실행해 나가고(물론 무조건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따라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내용을 학우속에서 풀어 내면서 합의를 내오면서) 이런 여러과의 목소리를 과(여)회장님들이 단대(여)학생회회의에 가져와서 다시 단대의 사업을 풀어내고 이것이 모여 총(여)학의 사업으로 외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총(여)학이 지역별로 모여서 그 지역 대학의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그 지역청년학생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조직이 바로 지역총학생회연합(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입니다. 물론 우리지역은 대구경북지역이니가 바로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입니다.

이것이 모여모여 전국 백만학도의 지도와 단결의 구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선간부들과 집행부서장들이 있어서 백만의 사업을 논의하고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하나의 일을 하고자해도 여러의견이 분분하고 집중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고 쉽게 지쳐버리기가 일쑤고 학우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럴때 우리는 좀더 다양한 학우들의 소리를 듣기위해 그래서 좀더 학우들의 목소리를 담은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한사람한사람을 찾아다니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된 사업은 아무리 형식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학우속에서 공감을 얻고 준비한 사람들 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총련(전여대협)입니다. 백만의 소리를 전해주는 과간부들속에서 힘을 얻고 사업의 방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한총련(전여대협)의 간부입니다. 나의 한걸음한걸음이 없다면 과연 한총련(전여대협)이 존재하면

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학우들의 중심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인으로 우뚝 서야겠습니다. 내가 주인인 조직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힘들고 또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바로 과(여)학생회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한총련(전여대협)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객관적'을 말하면서 이리저리 머리속으로만 이리저리 재면서 비난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적 발전은 나의 참여로 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고 다시 일어서는 한총련(전여대협) 간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조직에 대해 고민해보고 힘차게 한총련(전여대협)출범식을 우리학교에서 받아안아 전국의 백만학우의 모범으로 우리의 조직을 발전시켜갑시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학교 총학생회장님이 대경총련 임시의장님이시구요

우리학교 총여학생회장님이 대경여대협 의장님이래요

한총련 임시의장님은 정태흠 고려대 총학생회장님이시구요.

## 대동학교 준비에 들어가면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마치고 조금은 떨떠름한 우리 여학간부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과 각 단위에서 무리하게 우리 것을 고집하지 않고 전체판 속에 녹아든다는 생각으로 임했지만 새내기들에게 여학생회라는 것을 알리는데는 부족한 것같아 아직도 씩씩해 하시는 간부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찝찝한 마음을 대동학교를 통해 모두 훌훌 털어버리기로 하구요, 준비된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합시다!!

이제까지의 대동학교는 연인원 500명에 가까운 학우들의 참여를 이루어내면서 새내기들의 교양, 조직화의 주요한 공간으로서 대동학교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내었다. 새로배움터가 새내기들에게 대학과 학생회, 사회현실에 대한 초보적 인식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해 주었다면 대동학교는 성차별교육과 성차별문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것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도를 제시해 주는 여학생회 단위의 건강한 신입생교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준비 주체와 내용은 여학생회이지만 참여의 동력은 여학생회단위를 넘어서 학생회 단위까지 확산되어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대동학교가 굳이 여학생회가 아니더라도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도 할 수 있느네) 할 수 있는 행사로 비친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여학생회 고유의 사업방식으로 계속해서 받아 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올해 6기를 맞게 되는 대동학교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학생회 전문적인 내용을 실고자 한다.

대동학교에서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여학생회라는 부문조직의 내용이다. 다시 한번 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리고, 새내기들이 갖고 있는 초보적인 고민들을 총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좀 더 깊은 내용의 교양 프로그램 마련과 이후 조직적인 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져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층과 같은 감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과간부나 단대간부가 인연동원의 기수마냥 사람을 모으는데 급급해 쫓겨 다녔다는 이야기 많이 한다. 또 중앙은 실무하중에 가래이가 찢어진다고 한다. 이는 기층과 같은 감으로 사업의 기획에서 부터 집행, 평가까지 같은 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 집행단위로 대동학교기획단모임을 단대1주체로 꾸렸으며, 아직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획판은 나오지 않은 단계이지만 곧 씩씩한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 총여학생회

이름 박 경 아  
직책 총여학생회장  
연락처 012-724-6965

이름 이 혜 영  
직책 총여학생회 부회장  
연락처 012-718-6965

이름 전 민 혜  
직책 총여 사무부장  
연락처 015-720-2779

이름 장 윤 정  
직책 총여 탁아부장  
연락처 012-719-6965

이름 박 은 희  
직책 총여 연대사업부장  
연락처 012-713-6360

## 사회대

이름 최 미 라  
직책 사회대 여학생회장  
연락처 956-9811

이름 배 정 원  
직책 지리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5-700-8392

이름 전 은 혜  
직책 사회복지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62500495

이름 박 보 경  
직책 심리학과 여연부장  
연락처 752-7157

이름 황 순 옥  
직책 신문방송학과 여연부장  
연락처 815-6530

이름 이 성 민  
직책 문헌정보학과 여연부장  
연락처

## 농대

이름 하 희 주  
직책 식품공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764-3444

이름 정 우 립  
직책 농경제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2-464-3331

이름 문 현 정  
직책 농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2-713-2493

이름 서 혜 영  
직책 농토목공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5-718-4264

이름 도 경 남  
직책 원예과 부회장  
연락처 012-718-4544

이름 곽 원 주  
직책 농생물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2-492-7419

이름 현 혜 영  
직책 임산공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2-497-0953

이름 정 경 숙  
직책 농화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5-733-8060

이름 김 민 정  
직책 낙농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2-491-2252

이름 박 명 희  
직책 임학과 여학생회장  
연락처 012-492-7419

## 사범대

이름 효 정  
직책 국어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353-0330

이름 정 원 희  
직책 교육학과 여부회장  
연락처 985-5860

이름 박 경 애  
직책 영어교육과 여대표  
연락처 253-1735

이름 한 정 아  
직책 일반사회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941-2307

이름 김 유 정  
직책 역사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353-1936

이름 임 수 진  
직책 지리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954-7550

이름 한 혜 정  
직책 구민윤리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이름 노 경 순  
직책 독어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553-3813

이름 유 지 은  
직책 상업교육과 여연부장  
연락처 566-6165

이름 김 은 하  
직책 가정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766-3569

이름 김 선 명  
직책 체육교육과 여부회장

## 연락처

이름 김 숙 정  
직책 물리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942-5646

이름 전 미  
직책 화학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764-3844

이름 신 연 주  
직책 생물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473-7066

이름 이 정 숙  
직책 지구과학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9411-7932

이름 이 주 영  
직책 수학교육과 여부회장  
연락처 755-6439

## 의대

이름 박 지 영  
직책 의대 여학생회장  
연락처 426-4452